

살아계신 주

John 14:15-21

2020 년 5 월 17 일

오늘이, 함께 교회 예배실에서 만나 예배 드리지 못한 지, 2 달이 가까이 되는 날입니다. 3 월 15 일부터였지요? 10 번 주일 예배를 같이 못드리고 있습니다.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예배까지 포함하면, 12 번을 이렇게 저는 혼자 예배실에서, 혼자 찬송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10 시 예배와 11 시 믿음 속 예배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지 모릅니다. 그래도, 11 시 예배 시간에는, 그레이스 사모님께서 오셔서, 피아노를 반주해 주시고, 함께 찬송하고 있어 많은 위로가 됩니다만, 믿음 속 여러분과 같이 다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생활이 얼마나 그리운 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아계신 주” 이 찬송을 함께 여기 본당에서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이겠습니까. 이 찬송 아시죠?

살아 계신 주.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은 이유는, 오늘 함께 받은 요한 복음 말씀에서 감화 감동을 받고 만들어진 찬송이라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2020 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각 뒤집어 질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극성을 부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집 안에 갇혀 살기를 이제 2 달이 넘어가니까, 많이 힘듭니다. 한창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학교 못가고 집에서 공부해야 하기에, 더 더욱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환자도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서두르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실업율이 30 퍼센트가 넘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애 곤란을 겪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되지 전과 같이 살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지 막막합니다.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살기에 너희가 산다. 내가 살기에 너희가 살게 되리라. 찬송가 작시자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넘치네.” 신앙을 고백합니다. 매일 이 찬송 부르면서 믿음을 갱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산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고, 걱정 근심 전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 계신 주, 내 갈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였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20 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질문들의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바로 전 절 (18 절)을 보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걱정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혼자 가는 인생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인생 여정의 동반자가 되시니, 내 앞길이 험난하고 구불 구불하여도 어깨 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20 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은하계를 망원경으로 보아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계시며, 조용히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5살짜리 소녀 아기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내 마음에 손을 갖다 대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쿵쿵 걸어다니는 소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순진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참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Dwell within you. 네 안에서 산다.

어떤 수도승 믿음의 선배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음 속에 한 자리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대화 하세요.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이 찬송이 기억납니다. He lives.

온 세상 살펴 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시어서, 주 동행 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신 분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우리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계신 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뒷짐을 지고서는, “어떻게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나 보자” 하면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 라는 이름의 14 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기독교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이 분이 계시 받은 대로, 글을 써서 후대에 남기셨는데, 영성 생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읽고 있습니다. 이 분의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엄마는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오늘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니?”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내 숙제를 도와주었어요. 공원에서 무숙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정원에 꽃들이 활짝 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엄마는 자기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나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영성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수요일 오후 2 시에 만나면, 감사한 이유 하나씩 나누자고 합니다. 감사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무슨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과, “요즘 하나님 어디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일맥 상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는지, 어디서 보았는지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병원에서? 가정에서? 가게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니, 동행하시니, 힘차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살아나갑니다.

3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사시니 우리가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명이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전 세계 적으로 30 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영국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다고 하지요? 8 만 8 천명이 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2 만 2 천이 넘었습니다. 커네티컷은 3 천 2 백명이 넘었고요. 웨어필드 카운티에서는 935 명이라고 어제까지 발표된 소식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밀집되어 살고 있는 도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62 명이 목숨을 잃었으니, 참 방역을 잘한 나라라고 소문 날 만 합니다.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 6 피트 거리를 두고, 손도 잘 닦아야 합니다. 감염이 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자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지 소식을 접할 때 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아닌가?

사실 누가 죽고 싶습니까?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만수무강이 생일 때마다 나오는 인사아닙니까? 21 세기 의학이 발달이 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생명 연한이 늘어나고 있어 참 감사하며 삽니다. 금년 2020 년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8.93. 79 살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평균 수명이 70 살이었다고 합니다. 60 년 사이에, 거의 10 년을 더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며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죽음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주일 만,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 매 주일, 아니 매일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믿음 여정의 종착역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장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3 차례 장지에서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도 10 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추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며 천국 환송하는 예배인데,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더욱 침울하지요. 게다가 날씨가 밝지 않으면, 참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예배 인도하는 저는 소리를 높힙니다. 장례 예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큰 소리를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전 15:55-57)”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음으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우 한 분으로 부터, 이런 글이 적혀 있는 액자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좋은 확진 검사 결과를 받도록 하세요. 의심하고는 정당한 거리를 두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부터 자가 격리 하세요. 매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Make sure you test positive for Faith. Keep your distance from Doubt, and isolate yourself from Fear. Trust in God through it all. 아멘 아멘 아멘.